

9. 낭포성 방광염 및 선성 방광염 (1 예 보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해부병리과

박설미, 우영주, 주종은

낭포성 방광염 및 선성 방광염은 1761년 Morgagni에 의해 처음 기술이 되었으며 이것은 방광에서의 양성 증식성 과정을 가리키며 만성 요로 염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광경 소견으로서 낭성 방광염은 미세한 빛의 낭이 고유판(lamina propria)에 주로 발생하고 방광삼각에 잘 생긴다.

현미경 소견상 증식된 von Brunn의 상피 세포소가 보이며 이들의 중앙이 낭성변화를 보이면서 이낭이 점액성액의 축적에 의해 확장되면 낭포성 방광염이라고 한다. 상피가 장생화의 점액을 함유하는 원주상피로 피복되면 이를 선성 방광염이라고 하며, 선암의 소인적 요소로 간주되어 정확한 진단이 밝혀질때까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본 예는 37세된 남자가 수년전 부터 시작된 배뇨곤란을 주소로 하여 지난해에 방광에 생긴 종양의 의진하에 생검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시행한 반복 뇨세포학적 검사에서는 염증세포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추적 뇨세포학적 검사상 많은 점액을 함유하는 원주 상피 세포가 나타남으로서 세포학적으로도 선성 방광염과 일치한 소견을 관찰할수 있었기에 조직소견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0. 육종양 신세포암종의 세침흡인생검 소견

- 1 예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in Sarcomatoid Renal Cell Carcinoma

- A case report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진윤미, 조미연, 정순희

육종양 신세포암종은 신세포암종의 약 1.0~4.8%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투명세포 혹은 과립형 세포를 갖는 일반의 신세포암종보다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신세포암종의 부분과 육종을 시사하는 방추형의 세포가 섬유조직구종, 섬유육종, 혹은 핵의 이형성이 심한 횡문근육종과 유사하게 배열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며 이 세포들이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cytokeratin에 양성으로 염색되고 전자현미경적 검색에서 부착반, 세포 지상돌기와 미세용모가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육종과 감별이 된다.

육종양 신세포암종은 세침흡인생검만으로는 방추형 모양의 역형성 악성 세포가 보인다는 보고 이외에는 진단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절제후 많은 부분의 검색 및 특수염색이

필요하다. 저자는 세침흡인생검후 신절제로 확진된 육종양 신세포암종 1 예를 경험하여 이의 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44세 남자로 4~5일간의 좌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이학적 소견상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우측신장에 직경 약 3cm의 종괴가 관찰되어 세침흡인생검을 시행하였다. 세침흡인생검 소견상 출혈성 배경내에 방추형의 세포와 소수의 거대 세포가 군집을 이루며 흩어져 있었다. 방추형의 세포들은 염색질이 뭉쳐있는 과염색성의 핵을 가지고 있었으며 핵분열도 관찰되었다. 상피양 세포들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세포군집절편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vimentin 과 epithelial membrane antigen 에 양성, cytokeratin 에는 약양성으로 반응하여 신장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중 육종양 신세포암종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환자는 내원 10 일째 광범위신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우측신장의 육안소견상 겉모양은 잘 유지되어 있었고 피막에 섬유지방조직의 유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면소견상 증극에 신배와 연접하여 직경 3.5cm의 둥글고 경계가 좋은 황회색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피사나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대부분 크기가 다양하고 분화가 나쁜 방추형 핵을 가진 세포들혹은 조기구 모양의 세포들이 국소적으로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종양세포들은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cytokeratin, epithelial membrane antigen 과 vimentin 에 양성이었고 전자현미경 검색에서 많은 수의 세포간 접합이나 중간 세사가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어 육종양 신세포암종으로 진단하였다.

11. Cytologic Features of Necrotizing Lymphadenitis

- Report of two cases -

Youngmee Cho, Gyungyub Gong, Gheeyoung Choe, Eunsil Yu, Inchul Lee

Department of Pathology,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Fine needle aspi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in surgical pathology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1927. This technique has been used on many organs, especially in the lymph nodes conveniently. Although it is frequently applied for the diagnosis of metastatic carcinoma and malignant lymphoma, cytologic features of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so called "Kikuchi's disease", have not been well described. Histiocytic lymphadenitis was first described by Kikuchi in the Japanese literature in 1972. This condition is seen most commonly i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Most patients are young women with a persistent, painless cervical lymphadenopathy of modest degree that may be accompanied by fever. This disease is usually self-limiting. We reviewed cytologic features in two cases of necrotizing lymphadenitis which were diagnosed by subsequently performed excisional biopsy.